

제 1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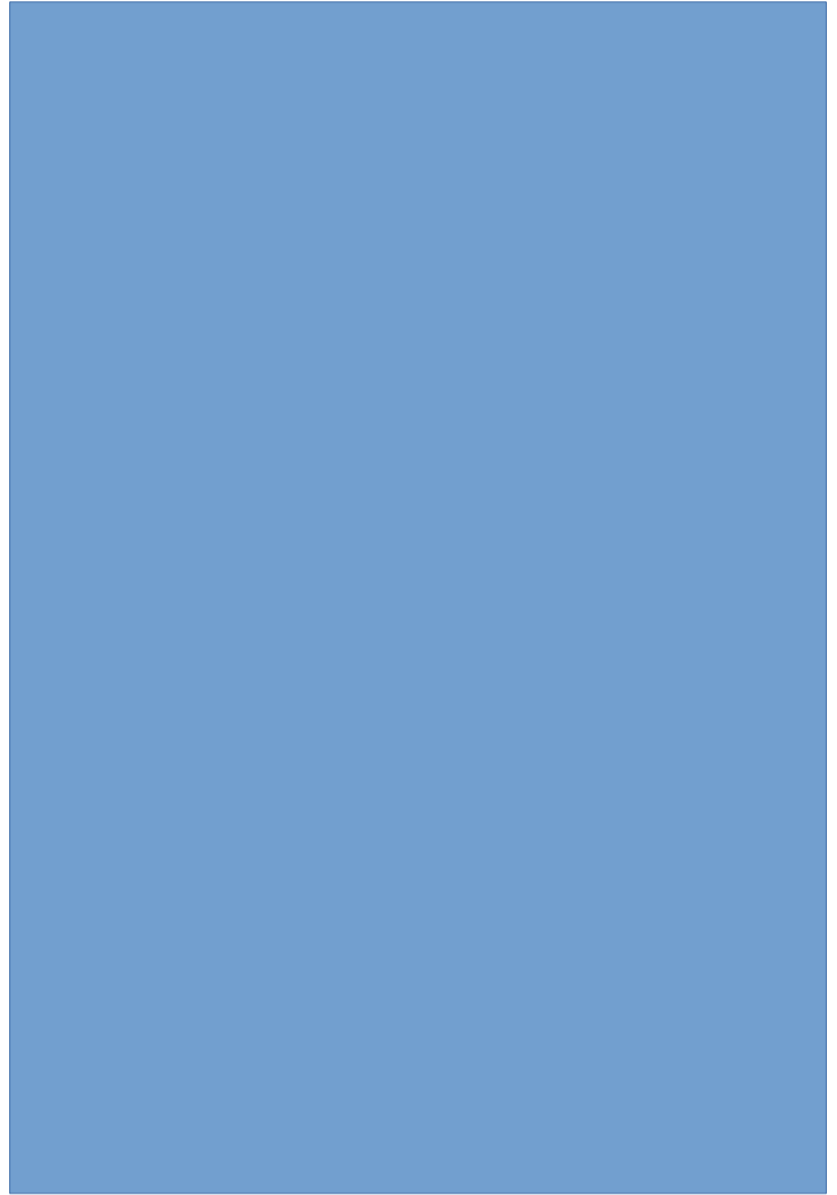
수험번호

못한 것은?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 번과 6 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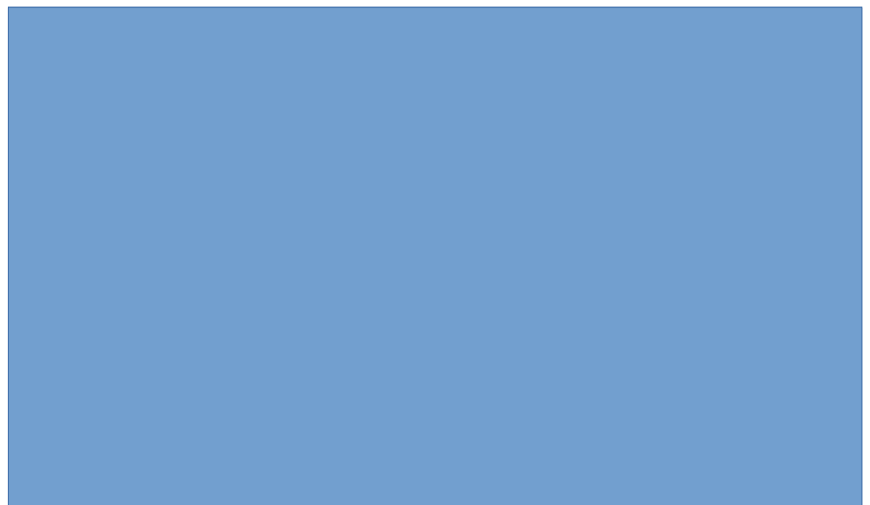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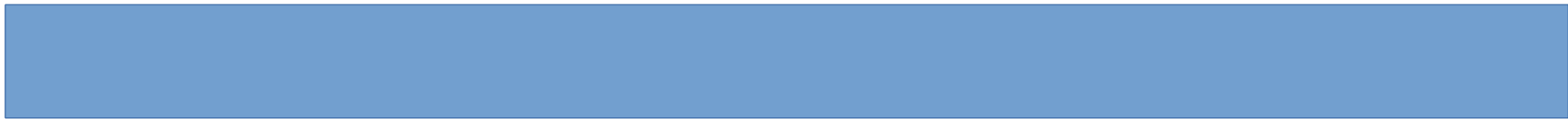
[1 점]



(가)

(나)





것은?

지 않은 것은?

친구 문제와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는 상황으로 설정하자.

소년의 가출

혼자 사는 할머니를 만남

가출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취할 때 옆방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는 것으로 하자.

활달한 성격의 할머니와 소년 사이의 갈등을 노출시키고 결말에서 그 갈등이 해소되는 것으로 설정하자.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게 됨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자식을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소년의 심경에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설정하자.

부모님과의 화해를 결심함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됨

소년이 자신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을 넣어 결말을 자연스럽게 꾸미자.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들 대부분은 거절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 이는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인의 인간 관계는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이라는 어느 외국인의 말은 이런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우리의 정서상 가까운 사람이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 더군다나 그 일이 내게 백찰 것 같으니까 할 수 없다는 말을 꺼내기는 더 어렵다. □ 웬만큼 친한 사람이 아니면 부탁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무리를 해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신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돼."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부탁 받은 일이 내가 하기 힘든 일이라 판단하면 그 즉시 거절하는 게 좋다.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였건, 일단 시작한 이상, 그 일의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라. □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냉정하게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범죄가 언론 보도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언론이 범죄를 취재감으로 찾아내기가 쉽고 편의에 따라 기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보도를 통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범죄 보도는 범죄자나 범죄 피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법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은 얼굴 및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타인이 함부로 촬영하여 공표할 수 없다는 인격권과 이를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재산권을 포괄한다.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무단 촬영·보도, 승낙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보도, 몰래 카메라를 동원한 촬영·보도 등을

들 수 있다.

법원의 판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내에서 불법으로 개인 지도를 하던 대학 교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현장을 방송 기자가 경찰과 동행하여 취재하던 중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습실을 무단으로 출입하여 취재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취재의 자유를 포함하는 언론의 자유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연습실과 같은 사적인 장소는 수사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이를 무시한 취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례는 법원이 언론의 자유와 초상권 침해의 갈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판결은 사적 공간에서의 취재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노출된 범죄 피의자는 경제적, 직업적, 가정적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인격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버리기까지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공기(公氣)인 언론은 개인의 초상권을 존중하고 언론 윤리에 부합하는 범죄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범죄 보도가 초래하는 법적·윤리적 논란은 언론계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범죄가 언론에는 매혹적인 보도 소재이지만, 자칫 이/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자.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은편으려다.

은편으려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향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낮을 살게 하자.

- 조지훈, 마음의 태양 -

(나)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 떨구이는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설일(??) -

(다)

남녘 들판에 곡식이 □ 뜨겁게 익고

장대 같은 빗줄기 오랫동안 쏟아진 다음

남지나해의 회오리바람 세차게 불어와

여름내 흘린 땀과 곳곳에 쌓인 먼지
 말끔히 씻어갈 때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대추나무 우듬지**에 한두 개
 누르스름한 이파리 생겨날 때
 광복절이 어느새 지나가고
 며칠 안 남은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아쉬워할 때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 소리 □ 더욱 커질 때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여름이라고 생각지 말자
 아직도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이제는 인가 거두어들일 때

- 김광규, 때 -

* 이적진: '이제까지는'의 방언.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된 것 같아 □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느이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얘. 이북에 두고 온 눈발 저당잡고 돈도 꿍 달랠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 일종의 목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니가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판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그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숙 에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 했다. 그러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뵈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레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별판의 발머리에 □ 가매장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 가 낯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 비통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리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삼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만장(?)이 물었다.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실 적에
□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우리 마을의 선비들은 광간(K○)하고 진취적이거나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진나라에 계시면서 어찌하여 노나라의 광견(K□)한 선비들을 생각하신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공자께서는 '중도(?ㄷ)의 인물을 얻어 함께할 수 없다면 차라리 광견(K□)한 자와 함께하리라. 광(K)한 자는 진취적이고, 견(□)한 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하지 않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어찌 중도(?ㄷ)의 인물을 얻고 싶지 않으셨겠느냐마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없기에 차선의 인물을 생각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광한 자인지 감히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는 금장과 증석 그리고 목피와 같은 사람들을 광한 자라고 하셨다."
"왜 광한 자라고 합니까?"
"뜻이 높고 커서 □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지만, 그의 평소 행실을 살펴보면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께서는] 이러한 광한 자를 얻지 못하면, 더러운 짓은 하지 않는 선비를 얻어 함께하고자 하셨다. 이것이 견한 자이니, 광한 자 다음가는 사람이다."
"공자께서는 '내 문 앞을 지나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유감스러워 하지 않을 자는 바로 향원(?)이다. 향원은 덕(ㄹ)을 헤치는 자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향원이라 합니까?"

어린 경로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은? [3 점]

"[광한 자는] 왜 저렇게 잘난 척하는가? 말은 행실을 외면하고, 행실은 말을 외면하는데도 입을 열었다 하면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는가.' 하고 [견한 자는] 어찌 혼자서만 도도하게 살아가는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하면서 자신은 음흉하게 세상에 아첨하는 자가 바로 향월이다."

만장이 말했다.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 '점잖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디서든 '점잖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자께서 그를 일컬어 왜 '덕을 해치는 자'라고 하시는 겁니까?"

"비난하려 해도 비난할 것이 없고, 풍자하려 해도 풍자할 것이 없다. 유행하는 풍속에 동화하고 더러운 세상에 영합하면서도 충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굴고 청렴결백한 듯이 행동하여 여러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스스로는 옳다고 여기지만 □ 더불어 요순(??)의 도에 들어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덕을 해치는 자'라고 하신 것이다.

공자께서는 □ '같은 듯하면서 아닌 것[사이비(???)]'을 싫어하셨으니, 강아지풀을 싫어하는 것은 벼삭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요, 아첨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은 의(?)를 어지럽힐까 걱정해서다.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은 믿음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요, 정(?)나라 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바른 음악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다. 자주색을 싫어하는 것은 붉은색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요, 향원을 싫어하는 것은 덕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서다.'라고 하셨다. □ 군자라면 떳떳한 도로 돌아갈 뿐이다. 떳떳한 도가 바르게 되면 못 백성이 흥기(?@)하고, 못 백성이 흥기하면 사특함이 없어질 것이다."

* 정(?)나라 소리: 음란하고 야비한 음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주의 만물은 모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약 100 여 종이다. 흔히 이들은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소에 따라 그 생성 기원이 다르다. 우주가 생겨날 때 만들어진 것,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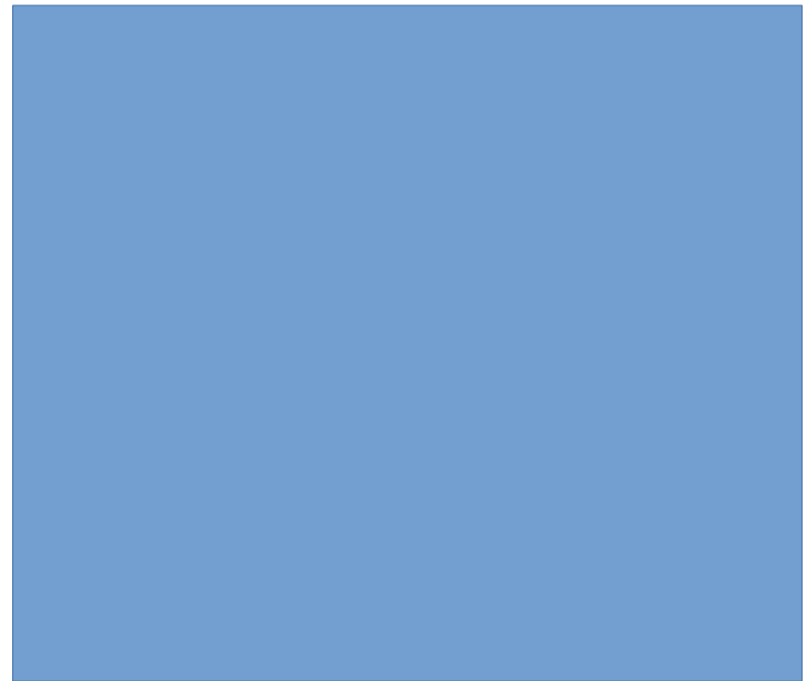
우주가 생성될 때 일어난 대폭발로 수소와 일부의 헬륨이 생겼다. 그리고 별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헬륨과 또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생성 초기에는 수소로부터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천만 도(10⁷K)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고온에서 원자핵이 반응하여 더 큰 원자핵이 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한다. 수소가 핵융합을 하여 헬륨을 생성하는 단계가 끝난 후, 별의 중심부 온도가 일억 도(10⁸K) 정도로 올라가면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헬륨 3 개가 결합하여 탄소가



헬륨이 더해져 산소가 만들어진다. 별의 중심부 온도가 십억 도(10⁹K) 이상이 되면 탄소와 산소가 다시 작은 원소로 깨어지고 서로 합쳐져 질량이 더 큰 마그네슘, 규소, 황 등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원소 중 철보다 무거운 것은 단순히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록 철 원소가 만들어지는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더라도 곧 다시 분해되어 안정된 철로 되돌아간다. □ 이것은 철의 원자핵 내 핵자 결합 에너지가 원소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핵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이며, 그 결합 에너지는 핵으로부터 핵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한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질량이 클수록 핵자 결합 에너지가 크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질량이 클수록 핵자 결합 에너지가 작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다음과 같이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 철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통 수사학에서는 환유(?)를 비유법의 한 종류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유와 같은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인간이 지닌 인지(?)의 기본적 특성의 하나로 밝혀지면서 비유법은 여러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비유법을 활용할 줄 아는 인지 기제(IJ?)가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환유적 표현을 무리 없이 이해하거나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환유는 인접성(???)을 바탕으로 사물이나 관념을 지칭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가령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표현에서 실제 끓고 있는 것은 주전자의 물이지만, '주전자'라는 용기(?)의 이름이 그 내용물을 지칭한다. 이러한 지칭 기능은 지시물 사이의 인접성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표현을 '물이 끓고 있다'로 이해하는 것은 '주전자'와 '물' 사이에 □ 밀접한 인접성이 있어서 의미 연상을 통한



의미 전이(????)가 신속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접성에 의한 의미 전이로 인해서 환유는 일상 언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확대 지칭'과 '축소 지칭'으로 구별된다. 확대 지칭은 부분으로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축소 지칭은 전체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 '손이 모자라다'에서는 신체의 부분인 '손'으로 '일꾼'을 확대 지칭하며, '온 동네가 기뻐했다'에서는 전체인 '동네'로 '동네 사람'을 축소 지칭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직설적인 표현 대신 이러한 환유 표현을 사용할까? 언어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우리가 전체로 부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분으로 전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가 훨씬 쉽게 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환유가 사용된 표현을 살펴보면 의미가 불충분하거나 표현이 생략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의사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전체로 부분을 지칭하거나 □ 부분으로 전체를 지칭하는 인간 인지의 융통성 때문이다. '차를 열다' 또는 '차를 수리하다'의 경우, 이를 차의 문이나 트렁크를 열거나 차의 부품을 수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실제의 사물을 구성하는 여러 다른 면을 자유자재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는 전체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유의 지칭 기능이 모든 조건에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환유의 지칭 기능은 다분히 상황 의존적이다. □ 동일한 낱말이 환유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 환유적으로 쓰인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환유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으려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상황에 대한 공유(≒?)된 지식이 있어야 한다.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찰찰하신* 노(씨)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거름을 준다, 손아(??)** 들을 데리고 □ 알삼아 공을 들이건마는 이러한 □ 간호 만으로는 병들어 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 별별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룻누룻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로 텐데……."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 어정거랄 때마다 노인은 자못 섭섭해 하였다.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였다.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리었다.

"그저 하늘 물이라야…… 역조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이 □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랑게 뜬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꺼멓게 □ 약어오르코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리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꼼짝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그 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테를 두르고 겹가지 셋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사층 나무도 되고 오층으로 된 나무도 있다. 장미는 홍예문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나무는 무슨 □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 노인은 가끔 안손님 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해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 재공(?씨)을 치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사층 나무 오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 일고지혜(? | ??)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무력무력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뺨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이어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포기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졸작,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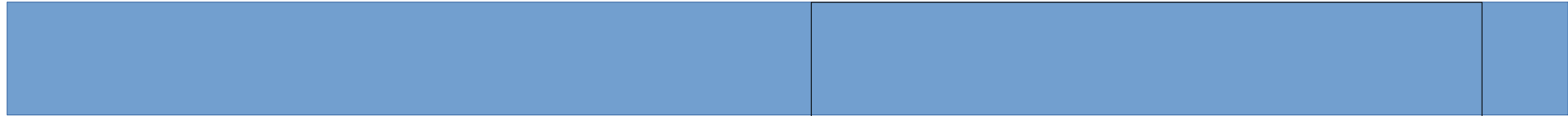
- 이태준, 화단(?) -

* 찰찰하다: 지나치게 꼼꼼하고 자세하다.

** 손아(?): 손주를 일컫는 말.

*** 별벌: 식물의 가지 따위가 옆으로 벌어진 모양.

채반(-?): 껍질을 벗긴 짜릿개비나 버들가지 따위를 엮어 만든 바구니.



참조 체계의 무궁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끊임없이 새로운 (□)를 찾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를 획득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를 형성하며 새로운 (□)를 생산한다.

감상의 과정은 주체와 주체의 대화이다. 감상 과정에서 예술 작품과 감상자는 서로 다른 관점과 개성을 지닌 두 명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묻고 대답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교정해 가는 개방적 태도를 갖는다. 자신의 □ 지계(?) 속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진리로 나아간다. 감상자는 예술 작품 속에 존재하는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대화 방식의 감상을 통해 예술 작품과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 낸다. 예술 작품을 자신이 갖고 있는 전이해(???)의 예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외재(???)하는 예술 작품을 통해 이를 초월·확대·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야(???)를 획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 작품도 자신과는 다른 감상자를 통해 자신의 의미를 초월하게 된다.

감상은 감상자와 예술 작품이 양방향으로 초월하는 미적 체험의 과정이다. 예술 작품은 감상자를 향하여,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향하여 서로 열려 있는 것이다.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흔히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말 대신에 예술 작품을 향유(enjoyment)한다고 하기도 하며, 예술 작품을 평가(appreciation)한다고 하기도 한다. 향유한다거나 평가한다는 것은 곧 예술 작품에서 쾌감을 얻거나 예술 작품의 가치를 따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 속에는 예술 작품은 감상의 주체인 감상자의 수용을 기다리는 존재이며, 고정된 채 가치를 측정당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예술 작품은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거나 감상자의 수용을 기다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예술 작품은 창작자와 창작된 시간, 문화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창작되는데, 예술 작품의 창작과 관계되는 이 요소들에는 사회 규범과 예술 전통, 작가의 개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예술 작품의 의미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은 창작자에 의해 텍스트로 조직되면서 변형되어 단지 참조 체계로서의 배경으로만 존재할 따름이다.

예술 작품의 의미는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만나게 되는 감상자에 의해 해석된다. 그런데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준거틀이 있어야 한다. 준거틀이 없다면 해석은 감상자의 주관적 이해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석의 준거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참조 체계이다. 감상자가 예술 작품과 만나는 역사적 순간의 참조 체계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며, 이러한 새로운 관계에 의거해 감상자는 예술 작품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낸다.

따라서 예술 작품이 계속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참조 체계를 통해 변화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근본적으로 예술 작품의 의미는 무궁하다. 이것은 □ "셰익스피어는 모두 다 말하지 않았다." 라는 말과도 같다. 이때 '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예술 작품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뜻이 아니다. 작품의 의미는 예술 작품 밖에 존재하는

□ □ □ □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 영감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며, 말을 잘하였다.
□ 특히 옛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하여 이따금 의기가 북받쳐서 흥분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 쉬며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중략)

손님이 또 물었다.

"영감님은 신선도 보았소?"

"보았지."

"신선은 어디에 있소?"

"□ 집이 가난한 자가 바로 신선이라고. 부자들은 늘 속세를 그리워하는데, 가난한 자는 언제나 속세를 싫어하니, 속세를 싫어하는 게 신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영감님은 나이 많은 사람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내가 오늘 아침 숲 속에 들어갔더니, 두꺼비와 토끼가 제각기 나이가 많다고 다투더군. 토끼가 두꺼비더러, '내가 팽조와 동갑이니까, 너 같은 자야말로 후생(?)'이다."

하고 말하니, 두꺼비가 머리를 숙이고 훌쩍훌쩍 읊는다. 토끼가 깜짝 놀라서,

'왜 그리 슬퍼하냐'

물었더니, 두꺼비가 이렇게 말합디다.

'나는 저 동쪽 이웃집 어린아이와 동갑인데, 그 아이는 다섯 살 때에 벌써 글을 읽을 줄 알았단다. 그는 아득한 옛날 천황씨(???) 때에 태어나서 인년(???) 역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왕(?)과 제(?)를 거쳤으며, 주(?)나라에 이르러 왕통이 끊어지자 책력(???) 하나를 이루었지. 진(?)나라 때에 윤달이 들었고, 한(?) 당(?)을 거쳐 아침엔 송(?)나라가 되었다가 저녁엔 명(?)나라가 되었지. 모든 사변을 겪으면서 기쁜 일, 놀라운 일, 죽은 이를 슬퍼하는 일, 가는 이를 보내는 일 등으로 지루한 세월을 보내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야. 그런데도 오히려 귀와 눈이 밝아지고, 이와 털이 나날이 자란단 말이야. 저 아이처럼 나이 많게 살았던 자는 없을 거야. 그런데 팽조는 겨우 팔백 살을 살다가 일찍 사라졌다니, 그는 세상을 겪은 것도 많지 못하고, 일을 경험한 것도 오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슬퍼하는 거지.'

결국 토끼가 두 번 절하고 뒷걸음질치면서,

'네가 내 할아버지뻘이다.'

합디다. □ 이로써 본다면 글 많이 읽은 자가 가장 목숨이 긴 거라우."

"그럼 영감님은 가장 훌륭한 맛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 하현달이 되어서 썰물이 물러나면, 바닷가의 흙을 평평하게 해서 염전을 만들거든. 그 갯벌을 구워서 성긴 것으로는 수정염을 만들고, 고운 것으로는 소금을 만들지. 온갖 맛을 조화시키면서, 소금 없이 어찌 맛을 내겠소?"

그러자 모두들 말하였다.

"좋소. 그러나 불사약은 영감님도 결코 못 보았겠소?"

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거야말로 내가 아침저녁으로 늘 먹는 것인데, 어찌 모르겠소? 큰 골짜기 굽은 소나무에 달콤한 이슬이 떨어져 땅속으로 스며든 지 천 년만에 복령(???)이 되지. 인삼 가운데는 신라의 토산품이 으뜸인데, 단정한 모양 붉은 빛에 사지가 갖추어진 데다, 쌍갈래로 땅은 머리는 아이처럼 생겼지. 구기자가 천 년 되면 사람을 보고 짓는다우. 내가 일찍이 이 세 가지 약을 먹고는 백 일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숨결이 가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 이웃집 할미가 와서 보고는 이렇게 탄식합디다.

'자네 병은 굶주렸기 때문에 생겼지. 옛날에 신농씨(???)가 온갖 풀을 다 맛보고 비로소 오곡(???)을 뿌렸으니, 병을 다스리려면 약을 쓰고 굶주림을 고치려면 밥을 먹어야 한다네. 이 병은 오곡이 아니면 고치기 어렵겠네.'

나는 그제야 쌀로 밥을 지어먹고는 죽기를 면했다우. □ 불사약치고 밥보다 나은 게 없는 썸이지. 그래서 나는 아침에 한 그릇, 저녁에 또 한 그릇 먹고, 이제 벌써 일흔이 넘었다우."

(중략)

어떤 사람이,

"해서 지방에 황충(???)이 생겨서, 관청에서 백성들더러 잡으라고 감독한답디다."

하고 말하자, 민 영감이 물었다.

"황충을 잡아서 무엇 한다우?"

"이 벌레는 누에보다도 작는데, 알록달록한 빛에 털이 돋혔지요. 이놈이 날면 명(?)이 되고, 붙으면 모(□)가 되어서 우리 곡식을 해치는데 거의 전멸시키지요. 그래서 잡아다가 땅속에 묻는답디다."

민 영감이 말했다.

"이따위 조그만 벌레를 가지고 걱정할 게 무어람. □ 내 보기엔 종로 네거리에 한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이 모두 황충일 뿐이야.

키는 모두 일곱 자가 넘고, 머리는 검은 데다 눈은 빛나지. 입은 주먹이 드나들 만큼 큰 데다 무슨 소린지 지껄여 대고, 구부정한 허리에 발굽이 서로 닿고 궁둥이가 잇달아 있지. 이놈들보다 더 농사를 해치고 곡식을 짓밟는 놈들이 없다우. 내가 그놈들을 잡고 싶은데, 큰 바가지가 없는 게 한스럽구려."

마치 이런 벌레가 참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 박지원, 민옹전(???) -

* 후생(???): 뒤에 태어난 사람.

*** 황충(?): 풀무치, 메뚜기과의 곤충.

52. 위 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와 인터넷 쇼핑몰의 컴퓨터 사이에 오고가는 정보를 읽어서 내가 입력한 신용 카드 정보를 □ 빼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면 정보를 주고받는 당사자 이외에는 그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나)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각각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절대로 겹치는 법이 없는 한 쌍의 키를 준비한다. 내 컴퓨터가 준비한 키 쌍을 각각 공개키 A와 비밀키 a라고 하자.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 알려주는 데에 사용하고 비밀키 a는 내 컴퓨터에만 보관한다. 공개키 A로 암호화된 정보는 오직 비밀키 a가 있어야만 해독되어 원래의 정보로 만들 수 있으며, 공개키 A를 가지고도 해독될 수 없다. 따라서 비밀키 a만 내 컴퓨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 알려 주어도 무방하다.

(다) 이제 인터넷 서점 '책마을'에 접속하여 책을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책마을 컴퓨터가 공개키 B와 비밀키 b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컴퓨터가 책마을 컴퓨터에 접속하자마자 두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자신들의 공개키를 교환한다. 즉 내 컴퓨터는 B를, 책마을 컴퓨터는 A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책을 주문하기 위해서 신용 카드 정보를 내 컴퓨터에 입력하면 내 컴퓨터는 이것을 책마을 컴퓨터의 공개키 B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책마을 컴퓨터는 암호화된 정보를 자신의 비밀키 b로 해독하여 원래의 신용 카드 정보를 얻는다. 공개키 B로 암호화하여 보내진 정보는 비밀키 b를 갖고 있는 책마을 컴퓨터만 해독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내 신용 카드 정보를 해독하기는 불가능하다.

(라) 내 컴퓨터의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나인 척하고 자기 컴퓨터에서 공개키 A를 알려주고 책을 주문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마을 컴퓨터가 받고 있는 정보의 송신자가 내 컴퓨터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책마을 컴퓨터는 내 컴퓨터에 '책마을만세'와 같은 임의의 단어를 보내면서 이 단어를 내 컴퓨터의 비밀키 a로 암호화한 후, 원래 단어와 암호화된 단어를 함께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비밀키 a로 암호화된 정보가 공개키 A로만 해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 내 컴퓨터는 원래의 단어와 암호화된 단어를 함께 전송하고, 이 두 정보를 전송 받은 책마을 컴퓨터는 암호화된 단어를 공개키 A로 해독한 후에 전송 받은 원래 단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이들이 일치한다면 공개키 A를 가진 컴퓨터(내 컴퓨터)가 보낸 정보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어떤 사람은 자기 컴퓨터가 가르쳐 준 공개키 A에서 비밀키 a를 알아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비밀키 a에서는 간단한

은?



계산만으로 공개키 A 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공개키 A 에서 비밀키 a 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속도가 빠른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계산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고 할 수 있다.